

창세기 1장의 기독교적 해석들

베른 S. 포이트레스

창세기 1장의 날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은 현대 과학의 주장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류 과학에서는 주장하기를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고 우주 전체의 나이는 약 140억 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두 주장이 모순되는 것입니까? 과학과 창세기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한 세기 이상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¹⁾ 그들은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한 설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능성들을 알게 되어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설명을 성급하게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는 접근법

첫째로, 이 문제를 무시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고대 인간의 종교 문헌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은 그저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성경의 주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창세기 1장을 긍정적이고 정중하게 해석하려는 설명들만을 다룰 것입니다.

다른 설명들 사이에 가장 뚜렷이 나누어지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언급된 날들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날들의 길이가 측정될 수 있었다면 그 날들이 오늘날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과 똑같은 길이였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해석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과학에 수정을 가하는 '은 지구 창조론'

창조 과학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와 관련된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지구와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류 과학의 주장에 관하여 그

1) 20세기 중반의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Bernard Ramm,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1954), especially 173-249. 좀 더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Vern S. Poythress, *Redeeming Science: A God-Centered Approach* (Wheaton, IL: Crossway, 2006), especially 33-147.

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 주류 과학이 주장하는 연대측정에 도전하여 수정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흔히 *24시간 날* 이론이라고 하지만, 이 명칭이 꼭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다른 이론들도 그 날들이 24시간 길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창조 이론

다음으로는 이른바 *성숙한 창조*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 이론은 창세기 2장이 아담과 이브가 아기에서 성인으로 점차 자라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직후에 한 과학자가 있어서 그들을 검사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그들의 나이를 22살에서 24살 정도로 추정했을지 모릅니다. 그 추정 나이는 그들의 실제 나이가 아닌 *외견상의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창세기 2:6-9에 묘사된 대로, 에덴동산에는 이미 다 자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들의 줄기에 나이트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트를 세어 보고서 과학자는 또 그 나무의 ‘외견상의 나이’를 추정하였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아담의 눈과 피부와 치아를 검사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관성이 없는 나이를 찾아냈겠습니까,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 나이를 찾아냈겠습니까? 검사한 것이 모두 22-25세쯤 되는 것으로 밝혀냈겠습니까? 아니면 눈의 나이는 9살이고 피부 나이는 80살이고 치아 나이는 30살이라고 밝혀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곧 창조의 주권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신 세세한 결정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 방안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일관성 있는 성숙성 즉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나이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나무 같은 것들이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전 우주가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일관성 있게 성숙*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고 우주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의 나이 추정들은 단지 외관상 나이의 일관성 있는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이 이해에 따르면, 전 우주는 불과 수천 년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일관성 있는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나이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에서 그 일관성은 간단하게 설명됩니다.²⁾

계시적 날 이론

다음으로, *계시적 날(Revelatory-Day)* 이론에서는 그 6일이 6일인 바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진리들을 창세기의 저자에게 연속적으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문제의

2)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창조론’에 심하게 반대하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만일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들이 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유와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하여서는 다음을 보시오. Poythress, *Redeeming Science*, 117-30.

그 날들은 창조의 행위의 시간보다는 제시의 시간을 구성하는 날들입니다.

간격(Gap) 이론

간격(Gap) 이론에서는 창세기 1:1과 1:2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2절에서는 그 후에 큰 재앙이 있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1절에서는 그 후의 재창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스코필드 관주성경(1909; 개정판 1917)의 주석들을 통하여 대중화되었습니다.³⁾ 이 견해에 따르면,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창세기 1:1과 3절 사이의 시간에 어울립니다.

지역적 창조 이론

간격 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적 창조 이론에서는 창조의 원래 행위들이 창세기 1:1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2절은 고대 근동의 격변적인 파괴를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31절에서 묘사된 재창조는 근동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간헐적 날 이론

간헐적 이론은 창세기 1장의 그 날들이 24시간 길이지만 날들 사이의 시간에 간격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상당 부분이 이 간격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계시적 날들 이론이 앞서 논의한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짧은 지구 창조론에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 ✚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우리가 전 우주가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일관성 있는 성숙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성숙성이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 간격 이론과 지역적 창조 이론과 간헐적 날 이론이 각기 시간의 간격들을 창조 기사와 어떻게 통합시킵니까?

3) C. I. Scofield, ed.,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 Authorized Version*, new and improve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7), 3.

날-시대(Day-Age) 이론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이 반드시 24시간 길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견해는 *날-시대(day-age)*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창세기 1장의 각 '날'이 각각 긴 시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이 날은 단순히 24시간 길이라기보다는 전체 지질학적 시대들과 부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통상적으로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יום*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호소합니다.

1. 빛의 기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창 1:5).
2. 빛과 어둠을 합한 기간(24시간):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 4:16).
3. 독특한 성격을 띤 불특정 기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창 2:4- 대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전체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됨) . “여호와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슥 1:14).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 24:10). “이 것은 여호와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사 34:8).

날-시대 이론은 창세기 1장이 날이 불특정 길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비적 날 이론

이 이론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하나님의 노동일로서 이것은 출애굽기 20:9-11에 표현된 인간의 노동일들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론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의 이 유비는 그 날들의 길이에서 동일함(identity)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노동일은 인간의 노동일과 유사하지만 현대 기술력에 의해 측정될 때 그 노동일이 인간의 날들과 정확히 똑같은 길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골격 관점(Framework View)

골격 가설로도 불리는 이 관점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하는 *문학적 틀*로서 구성되었지만 그 날들이 사건들의 직선적인 연속이나 측정된 시간의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일 뿐이라는 이론

이 이론은 창세기 1장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 교훈을 제공하려는 목적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현대 과학과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킬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접근 방식에 몇 가지 변종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성경 전체와 특별히 창세기 1장은 ‘누가’ 와 ‘왜’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반면에,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과 과학이 서로 다른 유형의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충돌은 단지 창세기 1장의 목적을 오해한 것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에서 만들어진 기원의 설화들(신화)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이 몇몇 설화들과 어떤 접촉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이 동일한 장르에 속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이 시공간 내의 특정 사건들에 관하여 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신학적 진술이나 종교적 진술을 하려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성경에서 날(히브리어로 ‘יו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세 가지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어떻게 유비적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까?
- ✚ 종교적일 뿐이라는 이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이 어떤 두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까? 이 견해에서 과학이 대답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평가의 원칙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날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 이론들이 모두 똑같이 좋은 것들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어떤 이론들은 다른 것들보다 많은 문제

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들은 과학이나 성경 구절들의 의미를 평가하는 일을 잘못할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꼼꼼하게 살펴 추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추려내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유망해 보이지 않는 이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망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좋게 보이는 이론이 나중에는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간격(Gap) 이론’ 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이론은 한때 인기 있는 이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2의 히브리 문법에서 난관에 봉착하여, 오늘날은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권위

우리의 평가는 우리가 권위로 인정하는 누구 혹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 중 아무도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 학자들 중 아무도 성경에 관하여 이제까지 기록된 모든 것들에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혹은 문화적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말하는가?’ ‘무슨 권위로 그 말을 하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과학에 거의 무한대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진솔한 과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은 모든 과학적 결과들이 원칙적으로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학은 모든 가능한 증거들이 모아지고 모든 가능한 실험들이 이루어진 지점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이미 있는 증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설명을 고려해 보았노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사람이어서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견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많은 과학기술 제품들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보증할 수 있는 인상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은 과학적 주장들을 존중히 대하되 동시에 인간이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큰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관은 확실히 성경과 현대 과학의 관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창세기 1장의 다른 해석들을 평가할 때, 이론들이 우리에게 가장 타당할 것처럼 보이도

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과학적 주장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는 폭넓게 논의되어 왔습니다.⁴⁾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해 주는 대표적인 두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게다가 베드로후서는 신약에 속하는 바울의 글들이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벧후 3:16).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곳에서 구약의 권위를 증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요 10:35)

마태복음 19:4-5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2:24을 인용하시고, 창세기의 이 구절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음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하고, 제자라는 것은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4) 중요한 논의를 위하여서 다음의 문서들을 참조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Benjamin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48); *The Infallible Word: A Symposium by Members of the Faculty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3rd rev. ed.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46);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eds., *Scripture and Truth* (Grand Rapids: Zondervan, 1983); John M. Frame, *The Doctrine of the Word of God*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10).

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경과 현대 과학의 관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반면에 현대 과학의 주장들은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과학에 긍정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지혜롭고 한결같은 다스리심은 과학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르게 깨달은 과학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과학이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인간의 노력이고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므로, 성경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우리가 항상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성경은 무오하므로,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경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원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중 더러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르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다른 권위들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일이 항상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해석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도전들은 항상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성경이 무오할지라도, 성경 *해석*자인 우리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과학의 오류 때문에 과학이 실패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함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보고서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24시간 날들을 고수하는 해석만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정당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한 권위를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도 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하여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창조의 날들에 관하여 열거한 관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소책자에서 충분한

논의를 비탈 수 없습니다. 좀 더 충분히 다루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충분한 분량의 책들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⁵⁾ 여기서는 각 관점들의 주요 장점과 약점을 알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참된 그리스도인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 어떻게 성경은 과학의 기초를 제공합니까?
- ✚ 성경과 과학이 불일치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좀 설득력이 없는 이론들

좀 설득력이 없는 일부 관점들은 대충 넘어갈 것입니다.

계시적 날들 이론

계시적 날들 이론은 기발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인간 저자에게 계시하셨으나, 창세기 1장은 *계시*의 행위보다는 *창조*의 행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어떤 명시적인 증거도 그 날들이 창조 행위의 기간들보다는 모세에게 하신 계시를 표시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11은 *창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분명히 이 구절은 옛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일을 *계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격(Gap) 이론

그다음, 간격 이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이론은 창세기 1:2의 히브리어 문법에 저촉됩니다. 그 히브리어의 문법적 배열 순서 - 접속사(와우 접속사) + 주어 + 완료시제 동사 - 는 보통 줄거리가 진행되는 새로운 사건보다는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데 쓰입니다. 2절은 1절에서 말한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절 이후 파국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창조 이론

5)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좀더 오래 된 책으로는 다음의 책을 추천한다. Ramm, *The Christian View* (1954), 다소 최근의 책으로는 다음의 책을 추천한다. Poythress, *Redeeming Science* (2006).

간격 이론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창조 이론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주로 창조 기사입니다. 시편 104편과 성경의 창조에 관한 중요한 묵상들은 창세기 1장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 신학에서 지극히 중요한 창조의 주된 행위에 대하여 한 절(1절)만 할애하였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간격 이론과 지역적 창조 이론은 1장의 나머지 전체가 단지 세상의 회복 혹은 지역적 재창조의 일만을 말한다고 주장하나, 창세기 1장이 원 창조의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분명한 표시가 창세기 1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창세기 1장 전체를 창조의 최초 행위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게 됩니다.

간헐적 날들 이론

간헐적 날들 이론은 24시간 날들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시간의 확장된 기간을 감안하는 또 다른 기발한 시도입니다. 이 이론은 날들 사이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 간격들 속에 확장된 기간들을 넣음으로써 그렇게 시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전혀 간격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간격에 관하여 전혀 긍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침묵에서 추론하는 것은 확고한 근거가 아닙니다.

이 이론에는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요 창조 행위들을 날들 자체 속보다 간격들 속에 집어넣는 것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0:11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표현과 긴장을 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날들 사이가 아니라 그 날들 *속*에 정확하게 두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0:8-11에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안식을 인간의 일과 안식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노동처럼 그 날들 *사*이보다는 논의되고 있는 그 날들 *에* 발생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모방할 본으로서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어떻게 창세기 1장의 표현은 계시적 날들 이론과 간격 이론과 간헐적 날 이론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 ✚ 어떻게 시편 104편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지역적 창조 이론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만듭니까?

종교적일 뿐이라는 이론

이 이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통상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이론은 어느 정도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와 ‘왜’ 에 대한 지식을 주는 일에 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라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구체적인 활동에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절정의 구속을 행하십니다.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그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을 제한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주된 목적을 존중하고 그 주된 목적에 비추어 세부 내용들을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구절이 한 목적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세부 내용들이 항상 그 내용만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의 주된 목적에 호소함으로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더 큰 전체 즉 창세기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결국 모세 오경(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에 포함되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제 오늘날 성경을 총망라하는 정경의 첫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사람들을 시공간 속에서 살고 죽고 구체적인 경험을 한 실제 인물들로 소개합니다. 구약의 뒷부분들과 신약의 언급들은 성경이 이 사람들을 허구적 또는 부분적인 허구적 이야기의 등장인물들보다는 실제의 인물들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가복음 3:23-38에서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기록함에 있어서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이 전체 창세기에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창세기의 처음 장들이 꾸며낸 것들이 아니라 일어난 것들 곧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셨지만, 그다음에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었을 때 우리와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학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은 과학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시거나 현대 과학에 의해서만 드러난 자세한 내용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말로 하시는데, 어떤 문명에 속한 그 누구도 참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사람들이 창조의 기본 진리들을 배우게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 드신(출 20:11)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한분 참하나님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고,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 그분의 관계에 관하여 기초적인 설명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세부 내용들을 비롯하여 그 전체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종교적일 뿐이라는 이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는 것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반대쪽 극단도 피하여야 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우리는 과학의 결과들에 너무 강한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가 마치 상세한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날-시대 이론

날-시대 이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이론은 대개 *날*에 대한 히브리어의 의미들의 범위에 호소합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불특정 기간을 위해 그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창세기 1장에서 그 *날*들은 계수되었고, 연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하는 것은 인간이 일하는 *날*로서 *날*과 더 잘 맞습니다. (2) 안식일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출애굽기 20:8-11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들과 인간이 일하는 *날*들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3) 창세기 1장의 구절들은 각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를 들어 창 1:5)라는 표현으로 끝맺습니다. 저녁과 아침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일하는 *날*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관찰에서 날-시대 이론의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 조정된다면, 이 이론은 자신과 유사한 유비적 *날*들 이론으로 바뀝니다. 두 이론 간의 큰 차이점은 유비적 *날* 이론은 *날*의 독특한 어휘적 의미에 직접 호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유비는 한 단어 즉 그 *날*이라는 단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들과 *날*들을 포함한 전체 주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아침까지 그 시간은 시편 104:23에서 말한 것처럼 일에서 저녁 휴식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19-20절에서 해 지는 것과 흑암을 언급하는 것도 눈여겨보십시오.)⁶⁾ 하나님께서는 한 *날*의 일하심에서 그다음 *날*의 일하심까지 그 사이에 쉬셨습니다. 유추에 의하여 사람은 밤에 자고 안식함으로써 쉽니다. 그런 다음 사람은 그다음 *날* 동안 일합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한 주 노동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주 동안에 일하시면서 만드신 그 방식에 유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6) C. John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6), 77.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종교적일 뿐이라는 이론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제한적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위치가 이 이론에 주는 난제가 무엇입니까?
- ✚ 날을 시간의 불특정 기간으로 정의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날-시대 이론을 유비적 날들 이론으로 바꾸려면 어떤 내용을 간단히 수정하면 됩니까?

유비적 날들 이론

유비적 이론은 주목하여야 할 유리한 몇몇 관점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로, 유비에 관한 생각의 출발점은 출애굽기 20:8-11의 안식일 명령에서 발견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하신 방식과 인간의 방식 사이의 유비를 지적합니다. 유비적 날 이론은 이 유비를 철저히 주장하지만 이 유비가 시간들이 기술적인 방법에 측정되었을 때 길이들의 일치를 암시한다는 것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이론은 일하는 날들뿐 아니라 안식하는 날인 제철 일에도 적용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으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1-3)

안식하신 날은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창 2:3)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써 세상을 계속 다스리시는 것을 압니다(예를 들어, 시 103:19; 단 4:35; 히 1:3). 그분의 ‘안식’은 완전한 활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동물들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로 창조하는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일에서 안식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계 21:1)도 예외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완성은 최초의 원창조와는 다른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는 다시 창조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안식의 날은 영원합니다. 그 날은 24시간 길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8-11에서 명한 인간의 안식일은 여전히 24시간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유비되기 때문입니다. 길이의 일치라기보다 유비가 두드러진 요소입니다. 유비가 일곱째 날에 속한다면 다른 여섯 날들에도 속합니다. 따라서 두드러진 요소는 시계로 측정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날 동안에 일어나는 활동의 종류들입니다.

셋째로,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들은 시계의 시간보다는 *사회적 시간*에 의해서 삽니다. 어떤 문화들에서는 기계적인 시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사회적 활동들, 곧 말하고,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언급에 의해 이해됩니다. 시계에 의한 길이 측정보다는 일어나는 활동들이 인간의 시간적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유비적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시간 성향을 이해하셔서 이러한 성향으로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인 시간 측정에 필요한 현대 기술력이 없고, 넷째 날 이전에는 해와 달도 없을 때, 사회적 시간과 관련된 성향만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⁷⁾ 따라서 그 날들은 인격적인 활동들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활동들에 의해 규정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안식하셨습니까? 이 사실이 그분이 안식하신 그 날에 관하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비는 창조 주간의 남은 날들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7) 대개 오늘날 독자들은 ‘정확한 *시간의 길이*’에 대한 논의 이전에 ‘어떻게 시간이 *측정*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선행한다는 점을 멈추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시간의 길이에 대한 논의는 그 전에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계로 재든, (핵 시간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재든,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등의) 천문학적 방식으로 재든 그런 측정된 시간의 개념이 선행하여야 한다. 우리 현대인들은 문화적인 면에서 ‘실제’ 시간은 당연히 시계로 재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간’의 면으로 생각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사실 창세기 1장의 처음 3일은 우리의 시간 계산과 관련한 문화적 편견의 범주 밖에 놓여 있다.

✚ 사회적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비에 어떻게 적합합니까?

골격 가설

골격 가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할 만한 것입니다.⁸⁾ 몇 마디 말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견해는 유비를 인정하는 점에서 유비적 견해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골격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는 연대기적 연속성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창세기 2:5-6의 확실한 이해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5-6을 달리 이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본문의 문학적 기교와 우아함이 연대기적 전개와 자연스러운 의미를 저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임을 단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날들의 일은 나중 날들의 일의 발판이 됩니다. 즉 4일째에 창조된 빛은 2일째에 창조된 창공에 놓였습니다. 5일째에 창조된 바다 생물들은 3일째에 창조된 바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문학적 필치를 보게 됩니까?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숙한 상태 창조와 계시적 날들과 다수 다른 이론들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24시간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젊은 지구 창조론은 가장 흔한 형태로 주류 과학이 주장하는 연대 결정의 많은 것들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스스로 차별화합니다.

여러 종류의 날짜 결정 기법

주류 과학에서는 날짜 결정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기법들에는 다른 기능들이 있지만, 공통된 기능들 중 몇 가지는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을 소개합니다.

1. **빛의 속도.** 천문학에서 어떤 연대들은 광속에 의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광속이란 빛이 우주의 먼 곳으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그 지름이 약 10

8) 다음을 보시오. Poythress, *Redeeming Science*, 143-47, 341-45.

만 광년입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하계 안의 우리의 위치로부터 3만 광년 이상 떨어진 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별빛이 실제 그 별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에 3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별은 최소한 3만 년 전에 이미 존재한 것이 틀림없다고 추론합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계의 이웃 은하계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보는 불빛이 이미 250만 년 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은하들은 더 한층 멀리 있고, 수십 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들도 있습니다. 은하가 멀수록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점차 더 어려워지고, 추정 과정이 더 개입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 같은 인근의 은하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그 거리의 정확성을 확신합니다. 비록 그들의 추정이 두 배 혹은 심지어 열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소 드러나더라도, 그 결과들은 여전히 젊은 지구 창조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시간이 수반될 것입니다.

2. **별의 성장**. 별의 성장 모델이나 핵우주 연대학이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 됩니다.

3. **방사성 연대 결정(법)**. 지리학에서는 과학자들이 방사성 연대 결정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들과 그 붕괴 생성물들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바위의 연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방사성 탄소, 칼륨-아르곤, 루비듐-스트론튬, 사마륨-네오디뮴, 우라늄-토륨-납 등, 상이한 동위원소들을 사용한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⁹⁾ 게다가 심지어 방사성 연대 결정법이 사용되기 이전에도, 지리학자들은 퇴적의 비율이나 용암의 식은 비율 및 기타 여러 방식을 추론하여 연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내곤 하였습니다.

4. **나이테**. 나이테를 세어 보는 [연륜(年輪) 연대학] 방식은 나무의 총 수명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래 산 나무들을 사용하면, 수천 년의 기간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나무들을 주의 깊게 연결하여 계산하면, 더 먼 시간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부 유럽의 호헨하임 오크와 소나무로는 12,000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¹⁰⁾ 오늘날 전 세계적인 비교 연대 측정 체계로 나이테를 추정하면 2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¹¹⁾

9) avid A. Young and Ralph F. Stearley, *The Bible, Rocks and Tim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8), 388-443.

10) M. Friedrich, S. Remmele, B. Kromer, J. Hofmann, M. Spurk, K. F. Kaiser, C. Orcel, and M. Küppers, "The 12,460-Year Hohenheim Oak and Pine Tree-Ring Chronology from Central Europe —A Unique Annual Record for Radiocarbon Calibration and Paleoenvironment Reconstructions," *Radiocarbon* 46 (2004): 1111-22,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Dendrochronology>, accessed June 28, 2011.

11) Paula J. Reimer, Mike G. L. Baillie, Edouard Bard, Alex Bayliss, J. Warren Beck, Chanda J. H. Bertrand, Paul G. Blackwell, Caitlin E. Buck, George S. Burr, Kirsten B. Cutler, Paul E. Damon, R. Lawrence Edwards, Richard G. Fairbanks, Michael Friedrich, Thomas P. Guilderson, Alan G. Hogg, Konrad Hughen, Bernd Kromer, Gerry McCormac, Sturt Manning, Christopher Bronk Ramsey, Ron W. Reimer, Sabine Remmele, John R. Southon, Minze Stuiver, Sahra Talamo, F. W.

한 가지 이상의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동일한 바위 혹은 암반층에 여러 가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의 나이를 계산하려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들의 연대를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계산하거나, 운석 혹은 달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서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계산하거나, 태양 안에 있는 헬륨의 양(이 것은 태양에 있는 대부분의 헬륨이 수소 융합을 통해 생성된 점을 가지고서 추정한다)으로부터 태양의 나이를 측정하거나, 핵우주 연대학의 방식으로 태양의 나이를 계산함으로써 태양계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창조 이론은 연대 결정의 이러한 결과들에 단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을 제공하지만,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대개 다른 대답을 선호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지 그 연대 결정 방식들이 잘못된 것들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표준 방식들의 결함을 보여 주거나 반증을 보여 주려고 하였습니다. 논증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¹²⁾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연대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네 가지 방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실제적인 예로서,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합니까?
- ✚ 창세기 1장에 대한 다른 기독교적 해석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연대 결정에 대한 대답에서 어떻게 두드러지게릅니까?

기저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비평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가치 있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 추정들이 과거 물리적 과정들에 관한 가정들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주류 과학은 과거 기본적인 수준 과정들이 현재의 과정들과 같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오늘날

Taylor, Johannes van der Plicht, and Constanze E. Weyhenmeyer, "IN TCAL04 Terrestrial Radiocarbon Age Calibration, 0-26 cal kyr BP," *Radiocarbon* 46, 3 (2004): 1029-58, cited in <http://en.wikipedia.org/wiki/Dendrochronology>, accessed June 28, 2011. For an overview on dating methods, see Mike Walker, *Quaternary Dating Methods* (Chichester, England: Wiley, 2005).

12) As a beginning point for astronomy, see the short introduction in Poythress, *Redeeming Science*, 99-105; for geology, see Young and Stearley, *The Bible, Rocks and Time* (old-earth position), and Larry Vardiman, Andrew A. Snelling, and Eugene F. Chaffin, eds., *Radioisotopes and the Age of the Earth: Results of a Young-Earth Creationist Research Initiative* (El Cajon, CA: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2005).

천문학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책의 간단한 입문 부분을 보시오. Poythress, *Redeeming Science*, 99-105; 지리학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두 권을 보시오. Young and Stearley, *The Bible, Rocks and Time* (old-earth position), Larry Vardiman, Andrew A. Snelling, and Eugene F. Chaffin, eds., *Radioisotopes and the Age of the Earth: Results of a Young-Earth Creationist Research Initiative* (El Cajon, CA: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2005).

과 과거가 동일하다고 가정됩니다.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함없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별의 성장의 기본적인 과정들이 동일하다고 가정됩니다.¹³⁾ 이 모든 가정들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정들이 실제로 타당한 가정들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세상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법칙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규칙적인 패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실하심과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격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과거에도 세상을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통일성과 창조에 대한 그분의 목적의 통일성은 그분의 다스리심의 종합적인 통일성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노아에게 하신 언약에서 계절과 낮과 밤이 한결같이 계속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2)

예외들?

하지만 성경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세부 사항들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는 어떤 시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적들이 성격상 예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반적인 특징에는 분수령이 될 만한 어떤 시점들도 있습니다.

1. 창세기 1:1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시점에는 전대적인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서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여섯 날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멈추셨습니다(그러나 섭리의 일이 중지된 것이 아닙니다).
3. 타락한 때. 그 타락은 본질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의한 윤리적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창조된 환경에 미치게 됩니다(창 3:17-19; 참조. 롬 8:19-22). 성경은 그 결과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관되게 타락한 세상을 관찰하도록

13) 이러한 가정들은 '균일설'이라는 용어와 관련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다음을 보시오. Young and Stearley, *The Bible, Rocks and Time*, 447-74.)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가정들을 비교 검토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점을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안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속도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여부에 대하여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하여 테스트하여 왔다.

그 결과가 일관적이었습니까?

4. 노아 홍수의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22에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은 연속성을 상당히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홍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얼마나 같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다릅니까?
5. 베드로후서 3:11-13과 요한계시록 21:1에 묘사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러한 충주적인 시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바꾸실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수령들입니다. 성숙한 창조론은 2번의 창조하신 옛새 날들의 마지막에 철저한 단절을 가정하는 이론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류 과학은 과거와 미래에도 연속성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에게 하신 약속에서 보았듯이, 정말로 상당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먼 과거나 먼 미래에 대하여 확신 있게(때때로 확신이 지나친?) 이야기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 ✚ 주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자연에서 관찰하는 과정들에 대하여 어떻게 추정합니까?
- ✚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우주를 다스리실 때 어디서 우리가 불연속성을 봅니까?

젊은 지구 창조론에 대한 주의

그런데 젊은 지구 창조론이 주류 과학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과학적 추론에 관여하고자 할 때 연속성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도 일반 상대성 이론¹⁴⁾을 통한) 광속 측정의 변화라든지 혹은 방사성 붕괴 비율의 변화나 다른 연대 측정 방식들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 주장이 연속성 같은 것을 전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연속성에 의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젊은 지구를 지탱하는 그때에 나타나는 물리학 법칙들의 연속성의 그 단편들을 딱 편리하게 골라내기란 쉽습니다.¹⁵⁾

14)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진공 상태에서 광속을 위한 보편상수 C의 존재를 상정한다. 이것은 인근의 관찰자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관찰자의 측정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15) 우주의 나이가 단지 6천 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보자. 그러면 주류 과학은 어떻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세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1) 홍수나 타락의 때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것, 혹은 창조의 6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에 변화가 생긴 것이, 주류 과학이 과학적 법칙의 일관성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2) (과학적) 법칙의 일관성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예를 들어 홍수 이전에 '아이스 캐노피'가 있었다는 가설 등)을 주류 과학은

만일 연대 측정을 위한 충분히 근거 있고 통일되고 포괄적인 젊은 지구 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이론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조하였듯이 과학은 항상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에 젊은 지구 창조론의 지리학적이고 천문학적인 난제들은 증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난제들의 증가가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 가정들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창조에 대한 다른 접근법들이 그 증거를 한층 더 정당하게 평가합니까?

결론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으로 돌아가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대안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호의적이든 아니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입장들도 있는데, 그중에 유비적 날 이론이 특기할 만합니다.

또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우리가 관찰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은, 그것이 주류 과학의 이론이든 창조의 날들에 대한 설명들이든, 모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벧전 1:25; 참조, 사 40:8; 마 24:35).

끝으로

배제해 버렸다. (3) 실제 법칙들(예를 들어 광속의 법칙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관한 법칙 등)은 주류 과학이 취한 모습과는 미묘하게 혹은 완전히 다르다.

만약 1번 대안을 택한다면, 과거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수립하기가 불가능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규칙성과는 다른 초자연적 행위란 너무 많은 가짓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규칙성들을 '정말로 찾아낸다면' 이제까지 쌓인 실제 과학적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창조론'의 입장으로 옮겨 가도록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열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그저 일관된 성숙도라는 규칙성(만)을 말하는 입장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2번 대안에서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이미 영향을 끼치는 명백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다소 명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한 가지 원인으로 좁혀서 지적하는 단서를 갖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다.

대안 3번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추측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칙들에 대한 현존하는 설명들이 장래에는 미묘하게 혹은 완전히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다. 장차 어느 때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들과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줌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서 논리 정연하게 수정을 가하게 될지지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을 **종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태양이나 에덴동산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들이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맥락에서는 성숙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한 가지 증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를 말하면서도, 다른 증거에 대하여서는 법칙들의 조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한 조합들은, 일관되고 통합된 보편적 이론으로 실제적으로 진전되는 일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이론적 가능성들을 양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것이 가능하며,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유용하지 못할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일이 되어진 방식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 ✚ 창세기 1장의 서로 다른 여러 해석들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론들의 기본적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은 무엇입니까?
- ✚ 왜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 ✚ 우리가 과학과 성경을 공부할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은 무엇입니까?